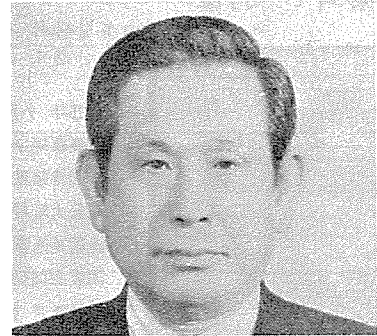


對話기회 자주가져
시야를 넓혀야...



□ 건축사법 만들어 국회통과—, 협회에서 공로상 출만하지...

□ 張 언제봐어도 늘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 李 네.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으로 다스려 나간다고 할까요. 먼저 정신적으로 골치아픈 일이 간혹 생기면 5~10분가량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후에 일단 시간차를 두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일은 그 후에 절대로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일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되짚어서 늘 웃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듭니다. 육체적으로는 예를들어 뭘 먹을까 생각해서 아, 그게 좋겠구나 하고 떠올리면 그걸 먹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권유 하더군요, 또 여자관계는 될 수 있는대로 안합니다. 그렇다고 늙었다고해서 아주 멀리하면 그것도 안되죠.

□ 張 칠순이 넘어서까지 정정하신 것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李 이자리가 마침 건축사협회니까 내가 건축사법 통과 될 때 얘기 한번 할까요—, 건축사법 만들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나라의건 잘 모르는것 같아요.

해방 후 김순화씨하고 건축사법을 만들어 자유당때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계리사법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데 건축사법에 건축사는 비과세로 해서 올렸는데 계리사는 면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통과과정에서 계리사법 때문에 건축사법도 면세가 안되었어요. 그때 면세가 되었으면 꼭 좋았을텐데... 그래도 공로상은 받을만 한 일이죠. (웃음)

□ 張 그 건축사법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현업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계 발전을 위해서 교수들도 설계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그 법이...

□ 李 네, 맞습니다. 이제는 교수들도 해야합니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업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공 정도만을

□ 출생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14 □ 학력 및 경력 /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 경성공업건축과 졸업 / 경성 박길용건축사무소 근무 / 남만주철도(주) 지방부 공사와 근무 / 도시계획연구회이사 / 국회전문위원 / 흥익개발(주) 이사 / 남일건설(주) 대표이사 □ 주요작품 / 대련역사 / 동대문시장 / 경성고교 / 국제극장 / 신신백화점 / 시민회관 / 조흥은행본점 / 한은 부산지점 / 동아일보본사등 다수 / □ 수상경력 / 대한기술 총협회 기술상 / 서울시 7차건축문화상 /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공로상.

☒ 対談 / 張錫雄 <본지편찬위원>



□ 하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축사가 되도록 노력 필요.



조흥은행본점



시민회관

해서는 얼마안됩니다.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해야 됩니다. 즉 기술연마를 해서 직접 뛰어들어 설계도하고 또 시공도 해야되다 이겁니다.

□ 張 선생님은 해방이후에 처음으로 설계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하시면 어떻습니까—.

□ 李 지금은 내이름으로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뭐고 하면 지금도 의뢰가 오곤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는 좀 봐주고 도와주죠. 그래야지 내가 직접 나서서 하면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이 많아져요.

□ 張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조로(早熟)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은퇴하는 예가 있어서….

□ 李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 張 그렇죠. 계속 작품활동을 하셔서 후배들에게도 보여주셔야….

□ 李 작품활동을 하다보면 어떤때는 후배들과 맞닥뜨리는(부딪치는)예가 있어요.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럴때는 내가 양보하죠. 다만 바달라는 이런저런 것을 보일수지만—.

□ 張 제가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양식에 관계가 되는 점이라든가 하는… 그래서 선배님들이 어떤 흐름을 이루어서 건축계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李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건 좋건 흐름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시대 건축가가 힘을 쓰면 흐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것을 강물속의 모래에 비유하는데 강물속에는 큰 바위도 있고 또 작은 모래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비록 작은 모래지만 물의 흐름에 작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처지가 비록 작은 모래라고 해도 여럿이 모이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력해야죠.

나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박길영씨 이후에 내가 바톤을 이어 받았어요. 박길영씨와는 약 10년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후에 김종업씨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이 김수근씨로 이어진다고 봐요. 물론 각각 10년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아니겠어요.

□ 선배들과 대화나누고 시행착오 다시 없도록 해야지….

□ 張 네. 재미있는 비유 같습니다. 결국 젊은 건축인들이 책임껏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李 맞아요. 맞습니다. 한데 요새 젊은 건축가들은 자세를 고쳐야 해요. 뒎고하니 어떤 일을 맡아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공개해서 좀더 검토 연구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선배들은 이미 많이 해 봤거든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결과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말예요. 그런것을 혼자해서 또 시행착오를 범하는데 그런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갖고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세가 중요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미해결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미해결의 부분을 선배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張 네. 오늘과 같은 이런 대화의 기회를 마련한것도 바로 그런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 李 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거든 낙성식 때도 좋고 아무때라도 선배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라

□ 기술연마해서 해외진출해야 바람직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뭘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혈투는 예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제삼자에게 소개할 때 나쁜점을 말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장점을 알려줍니다. 특히 작품을 말기는 건축사에게는 더욱 그 건축주의 장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것을 묻는 건축주의 이해해요. 다른 사람들은 단점을 말해주는데 이 선생은 어째 그러냐고 말입니다. 서로 깎아내리면 결국 남는게 뭐니까? 그래서 안되죠.

□ 전통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계승되어야...

□ 張 전통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고유의 건축 전통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 생각에는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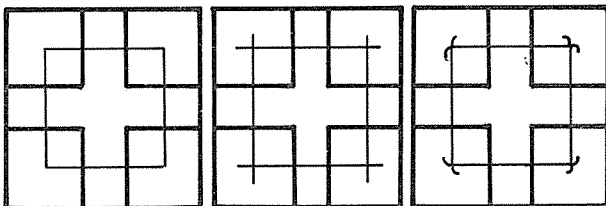
□ 李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배우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건축을 배웠잖아요. 해서,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것을 잘 몰라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것을 안다는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만 아는척 할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전통의 맥을 찾아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의 전통을 배우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후배들이 전통의 뿌리를 찾아 연구하고 검토해서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맛이냐고 할까요. 그런것은 알고있지요. 특히 일본것은 어느정도 압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맛이나 멋을 어떻게 내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나름대로 모양을 내더군요.

□ 張 어떤 분위기가 풍기죠.

□ 李 그럼, 맛이냐요. 한국, 중국, 일본이 나무건축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성적이라면 일본은 여성적이고 한국은 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성과도 연관된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양인 완자무늬 하나를 가지고도 간단하게 세나라의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러한 나름대로의 멋이 하나의 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통이 아니겠어요.

□ 간단한 문양으로 한국·일본·중국의 맛을 낸다.



□ 張 네. 하루속히 확고부동한 우리의 건축을 찾아야 할텐데... 선생님 학교에도 오래 관계하셨죠?

□ 李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안다닌 학교가 없었지... 서울대, 한양대, 이대등등 많이 다녔어요.

□ 一人자가 되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방향제시가 필요.

□ 張 학교교육과 실무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李 도제제도(從第制度)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인자(一人者)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전반을 마스터한 후에 한가지 분야만을 파고드는 교육이 필요하죠. 교수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학교교육과 실제적인 실수가 다르다는 것은 교과과정도 그렇지만, 일인자로 키우는 교육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張 네, 또 요즘 학생들은 졸업후에는 90% 이상이 건설회사로 가고있는데, 그런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 李 보수문제 때문에 시공회사쪽으로 가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공만으로는 안되죠. 기술을 팔아야됩니다. 설계를 해야죠. 그들의 방향을 고쳐줘야 할 책임을 교수들이 져야합니다. 여건이 좋아지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되고...

□ 張 선생님 작품소개 좀 해주시지요. 대표작품 등등...

□ 李 작품? 없어, 애착이 가는 작품이 없어요. 생각나는건 내손으로 처음해본 만주 대련역사(大連)가 있는데, 당시에 현상응모에 당선되어서 한전데 지금 볼 수 없으면 해요. 영보빌딩도 했으나 헐렸고... 해방후에는 자랑 할만한게 없어... 그래도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시기에 나름대로 공헌했다고 여겨요. 그 시기에 그만큼 했으니까...

□ 張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한 일을 하신걸로도 두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은...

□ 李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다른거야 다 잘들하고 있으니까...

작품이 나오면 선배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고 자유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밥줄 빼앗길까봐 그런지 전혀 그런게 없어 안타깝습니다.

□ 張 네, 우리는 너무 대화가 없는것 같아요.

□ 李 박길영씨가 계실때는 그곳이 사랑방이었습니까? 늘 나와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큰 설계가 나와도 걱정이 없었지... 누구든지 와서 해줬거든. 시간만나면 나와요.

진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그런 자리를 만들고 배우거든요.

□ 張 그렇죠. 선배님들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 李 휴게실하나 만들어 언젠지 올 수 있게해야... 자꾸 친목을 해야 합니다. 배타주의는 곤란합니다.

□ 張 하루속히 모든 건축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당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후배들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